국내에선 수천 종에 달하는 잡지가 발간되고 있으며, 그 중 수많은 잡지가 매일 새롭게 태어나거나 없어지곤 합니다. 잡지문화의 향상과 발전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까닭이기도 합니다. 〈출판저널〉은 넓은 의미의 출판행위라고 할 수 있는 국내잡지의 발전을 위해 잡지계의 소식과 비평, 인물을 취재, 소상하게 보도 할 것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열독을 부탁합니다.(편집자 주)

'기사형 광고 규제', 잡지계 반발

문광부, 내년부터 최대 2천만원 과태료 부과
잡지계, '현실과 맞지 않는다' 비판
신문광고와 구별되는 가이드라인 필요

앞으로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중 하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전면크기 광고는 해당 매체의 면별 안내와 같은 크기의 글자체로 '전면광고' 라고 표시해야 한다.

문화관광부는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이하 신문법) 시행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 라인(안)' 을 발표하고, 10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말까지 3개월 계도기간을 거쳐, 내년부터는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은 광고의 명시,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기만 표시, 기만적 표현의 금지 등 의무조항 4개항과 권고사항 5개항이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와 '기획광고' , '전면광고' 중 반드시 표시해야 하고 전면크기의 광고는 해당 매체의 면별(종합, 정치, 사회 등) 안내와 같은 크기의 글자체로 '전명광고' 라고 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신문법은 정기간행물의 편집인이 독자가 기사와 광고를 혼동하지 않도록 명확하게 구분해 편집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우고, 이를 위반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잡지계, '신문과 다른 잡지 특성 외면한 처사'

그러나 잡지계를 대표해서 변홍우 한국잡지협회 사무국장은 잡지의 현실성과 맞지 않는 규제라고 비판했다. 잡지계는 문화관광부의 '신문의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 에 대해 우선 세 가지 면에서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첫째, 잡지는 신문과는 다르게 일반 대중을 상대로 하는 매체가 아니라 전문화와 세분화라는 특징을 가지고 각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독자들에게 고급화된 컨텐츠를 제공하는 정기간행물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갖춘 독자들이 기사와 광고를 혼동한다는 것은 매우 희박한 가능성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문과는 구별되는 광고 가이드라인의 필요성을 제안했다.

둘째, 잡지의 광고는 정보제공 기능을 함께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전적이고 보수적인 학파들은 광고를 필요악인 것처럼 생각해 언론발전에 역기능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최근엔 잡지광고에 대한 일반 개념이 크게 달라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광고 그 자체가 정보가 되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는 것이다.

셋째, 현재 신문이나 잡지 등 오프라인 매체들은 온라인 매체와 경쟁하기 위해 콘텐츠의 질적 향상과 더불어 변형광고 시행 등 광고의 파격을 단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이다.

변 국장은 "잡지광고는 신문 등의 매체처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대중적인 제품을 광고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가 필요한 광고(예를 들면, 기계전문잡지 광고의 경우 기계 성능이나 이용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이므로 신문광고와 구별되는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안)이 적용되어야 할 것" 이라고 덧붙였다.

취재_ 정윤희 기자

기사형 광고 가이드라인(안)

【의무적 준수사항】

① (광고의 명시) 기사형 광고에는 "광고", "기획광고", "전면광고" 중에 하나를 반드시 표시하여야 한다.

② (광고 크기에 따른 표시) 전면 크기의 광고를 해당 매체의 면별 안내와 동안 크기의 글자체로, 면별 안내가 없는 매체일 경우 13급 이상의 글자체로 지면의 1/4 이상일 경우에는 11급, 그 이하의 경우에는 10급 이상의 크기로 "광고" 또는 "기획광고"를 광고 외곽선 또는 광고란 '중앙'에 표시하여야 한다.

③ (기만 표시 금지) 기사형 광고에 "특집", "광고특집", "PR특집", "PR광고", "전면PR", "기사형광고", "Advertising", "Advertisement", "Promotion", "신상품 소개", "협찬", "소비자를 위한 정보", "스폰서 특집", "스폰서 섹션" 및 이와 유사한 기만적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기만적 표현의 금지) "취재", "편집자주", "도움말 주신 분", "자료제공", "독점 인터뷰", "글(또는 취재) ○○기자", "사진 ○○기자", "전문기자", "칼럼리스트" 등 기사로 오인되게 하는 용어를 사용해서는 아니되고, 기사 말미에 이메일 주소를 놓는 등의 기만적 표현을 해서는 아니된다.

【권고사항】

⑤ 기사형 광고의 객관성과 중립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매체사 내에 기사형 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자율심의위원회는 기사형 광고의 제작, 정정요구 및 게재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다.

⑥ 기사형 광고는 다른 광고면과 바로 인접하여 게재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한다.

⑦ 신문의 기존 섹션면과 유사한 "헬스&라이프", "부동산", "재테크" 등의 명칭, 제목 등을 붙여 제작할 경우 특히 '전면광고' 표시에 신중을 기하고, 기사와 유사한 도표, 통계자료, 인터뷰, 사진 등을 사용할 경우 오인성을 감소시키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⑧ 기사형 광고의 글자체는 기사보다 1포인트 이상 큰 글자체를 사용하여 기사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한다.

⑨ 기사형 광고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매력적인 캐릭터를 개발, 좌측 상단에 표시하여 독자들의 신뢰도를 높인다.

'제41회 잡지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잡지협회(회장 강원희)는 11월1일 오전 10시30분 중소기업중앙회 2층 국제회의장에서 제41회 잡지의 날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근대 잡지의 효시로 인정받는 육당(六堂) 최남선의 '소년(少年)' 창간일인 1908년 11월1일을 기념하여 1965년 정부는 잡지의 날을 승인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잡지문화 발전과 언론 창달에 기여한 공이 큰 잡지인 시상과 제15회 우수잡지 10종도 선정, 발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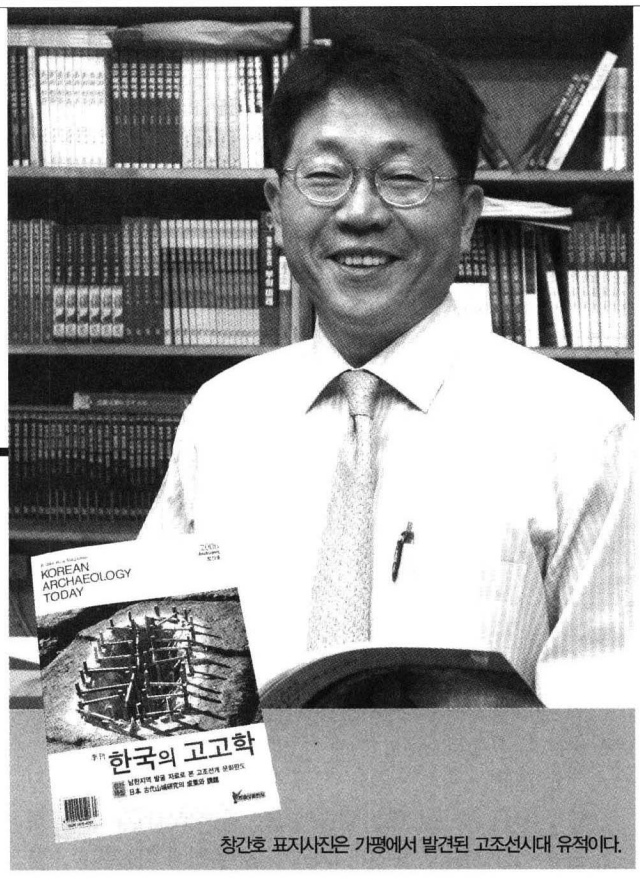
▲은관문화훈장=김종완 전 월간 〈희망〉 사장 ▲문화포장=정홍채 월간 〈건축문화〉 사장 ▲대통령표창=정해석 월간 〈인쇄문화〉 사장 ▲국무총리표창=전철규 월간 〈뚜르드몽드〉 대표이사 ▲문화관광부장관표창=정용철 월간 〈좋은생각〉 대표이사, 윤희창 월간 〈코믹퍼즐〉 사장, 김재철 월간 〈향방저널〉 소장, 김기원 월간 〈배드민턴〉 사장, 이순숙 월간 〈골프헤럴드〉 사장, 김기수 월간 〈시사법률〉 대표이사, 김대식 월간 〈팝사인광고〉 대표이사, 한재순 월간 〈마포〉 사장, 김태영 월간 〈건설기계인〉 대표이사, 김영철 월간 〈엔지니어링종합정보〉 대표이사 ▲유공상=고인경 월간 〈가이드포스트〉 발행인 ▲경영상=김중배 월간 〈조명과인테리어〉 발행인 ▲편집상=송정란 계간 〈문학과창작〉 편집국장, 이은숙 월간 〈우먼센스〉 부국장 ▲기자상=나성근 월간 〈난과생활〉 기획국장, 박현나 월간 〈기계기술〉 편집장 ▲업무상=김현진 월간 〈새벗〉 업무관리이사, 박인천 월간 〈서예〉 부장 ▲광고상= 남영복 월간 〈인쇄계〉 차장, 손장일 월간 〈사람과산〉 팀장 ▲특별상=김한국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격월간 〈사랑의열매〉 홍보팀장, 임정규 대한지적공사 월간 〈땅과사람들〉 홍보팀장

▲2006우수잡지=〈도예〉〈레몬트리〉〈문학동네〉〈음악저널〉〈119매거진 소방2000년〉〈전원속의 내집〉〈정경뉴스〉〈주니어〉〈틴뉴스〉〈포토넷〉

눈에띄는잡지

국내 유일의 고고학 잡지 〈한국의 고고학〉 창간

'유적을 발굴하는 마음으로 책을 만든다'



창간호 표지사진은 가평에서 발견된 고조선시대 유적이다.

〈한국의 고고학〉을 창간한 최병식 대표가 고고학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실로 우연한 기회때문이었다. 최 사장의 고향은 충남 연기군 전의면. 선산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백제산성의 비문에 새겨진 '역사를 알 수 없다'는 문구는 연기군 지역의 역사를 공부해야겠다는 동기를 불러일으켰다.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문화인류학 석사과정을 밟으면서 함께 공부하던 동기들과 백제의 역사를 일반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야겠다는 취지로 출판사 '주류성'을 운영해 온 지 15년째.

주류성(周留城)은 백제의 마지막 왕성이다. 사비성에서 의자왕이 항복한 후에 굴복하지 않고 일본에 있던 아들 풍왕을 데려와 백제를 부흥하는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풍왕이 있던 곳이 바로 주류성이다. 안타깝게도 주류성의 위치는 학자에 따라 다르다. 충남 서천군 한산(韓山)이라는 설, 청남 청양군 정산(定山)이라는 설, 전북 부안군 상서면의 위금암산성(位金巖山城)이라는 설이 있다. 각 학자들이 서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우리나라 고고학의 미천한 실상을 입증한다.

이처럼 〈한국의 고고학〉을 창간하게 된 배경은 우리나라 고고학의 역사를 기록하는 주체가 있어야 한다는 점과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고고학의 관심으로 모으자는 데 있다.

'주류성'에서는 2003년에 타블로이드판형에 32면짜리 〈대한문화재신문〉을 창간했다. 그러나 제작현실은 만만치 않았다. 특수지여서 광고를 수주하기가 힘들었고, 문화재청의 도움을 받았지만, 한계가 있었던 것. 1년 남짓 근근이 유지하다 재정난에 부닥쳐 폐간결정을 내렸다. 그동안 관심 있게 지켜본 고고학 관련 학자들이나 독자들은 "고고학 현장을 다루는 인쇄매체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적극적인 발언에 계간지로 발행결정을 내렸다.

편집위원은 전국적 규모로 명망있는 고고학자들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서울신문 문화부에서 30년 동안 기자생활을 했던 황규호 선생이 〈한국의 고고학〉을 기획하고 기사를 작성하는 데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창간호에는 김정기 초대 국립문화재연구소장이 '나의 고고학 인생'이라는 주제로 권두언을 썼고, 창간호 특집으로 '남한지역 발굴자료로 본 고조선계 문화판도'와 '일본 고대산성연구의 성과와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한국의 고고학〉은 앞으로 최근에 발굴된 유적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일반인들이 고고학을 쉽게 이해하고 관심을 갖도록 세계문화유적지 탐방 등을 기획하고 있다. 최근 뉴스에서 회자되고 있는 동북공정 문제에 대해서도 정확한 역사적 배경과 고고학적인 자료를 통해 독자들에게 공급할 계획이다.

〈일본의 고고학〉을 30년째 발행해 오고 있는 일본에 비한다면 우리는 늦은 시작이라는 최 대표는 "유물을 발굴하는 마음으로 책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내비쳤다.

취재_ 정윤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